

뚜나의城

~한 정신병 환자의 치료기~

<국립정신병원> 문 홍 세

筆者가 學校의 門을 나와 海軍에서 軍服을 입고 내면에는 小說이나 哲學에서 주워 모은 人生의 問題들을 조각조각 이어 그것이 어떤 形態 일가를 들여다 볼 機會를 가지기 시작할 때 만난 저부러진 한 人間을 본 대로 되새기며 그러가는 동안 그의 복잡한 生存樣式과 갈등된 感情들과 이의 해결을 모색한 흔적의 단편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들이켜 생각해 봐도 그렇게 體系的인 精神學問의 根幹이 서 있지도 않은 때에 그렇게도 많고 어려운 學說이 뒤에 버티고 서서 그 治療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精神病을 治療했다고 하는게 믿어지지 않지만, 運 좋게 내버려 뒀도 저절로 병이 낫는 수도 있는걸 보면 (勿論 그동안 患者自身이 그의 內的世界에서 피눈물나는 苦鬪나 극복이 있었다고 함이 좋겠다) 그렇게 주저만 할 것도 아닌 것으로 안다.

我田引水格으로 말해서 病든 人間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利己를 떠난 젊은 나이의 情熱이

나의 다른 약점이나 결함을 넘어서 그에게 옮겨져 그가 再起하여 現實로 다시 뛰어드는데 힘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病棟長이라는 잡무를 쓰며 鎭海 海軍病院 精神科에 부임했을때 前 軍醫官으로부터 患者를 인계 받으면서 “自己 나름의 幻想的인 城을 쌓아놓고 그 속에 「뚜나」라는 女人을 公主로 모시고 사는 환자”라고 소개를 받았다.

우선 이 “뚜나”라는 女人의 이름이 한국적이 아니고 어떤 西歐小說의 主人公 이름이고 따라서 城에 모신다는게 우리네 思考方式이 아니고 지극히 感傷的인 少年이 그 小說을 읽고 그때의 自己의 センチ멘탈리즘의 절수를 친 결과 가슴에 남겨진 이름이 아니었나 여겨졌고, 필자로서는 그런 小說이나마 求하기 힘든 시골—경상도 日光이라는 곳—에서 낱아서 자랐음에도 그리고 學校라곤 국민학교 中退程度의 學歴임에도 그런 武의 幻想을 하고 있음을 보고 우선 때는 푹푹한 머리를 가졌음을 알았고, 계

속해서 어디엔가 있을듯 싶은 꿈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으로 보고 자신을 發見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을 것으로 여겨 治療를 해주고 싶은 意慾이 생긴 것이다.

軍에서는 特別히 海軍, 海兵隊員들은 自願入隊한 士兵이 大部分인 點도 있겠으나 家族으로부터의 治療에 必要한 比較的 客觀的인 情報를 얻을 수 없는데 보통이어서 12個月間의 治療임에도 不拘하고 仔細한 그의 生活歷을 얻기란 難감했고 그때문에 그의 상세한 生活歷은 소개하지 못함이 큰 유감이다.

괴로운 事情은 한마디만 들어도 그 언저리까지 波及해서 알게 되는게 人間常情이라 그가 우물거리고 한마디 내뱉듯 배알고는 병어리가 되어 버리곤해서 그 어두운 마음을 우선 感知하고 그 內容은 제 마음에 印像으로 남기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다시 글 회상시키는 程度로 그치는 수가 많았다.

自由聯想(free association)에서 그와 필자와 함께 얻어낸 것은 그가 3살때 새벽 두時쯤 그러니까 그의 말대로 表現하면 온 世界가 새까만 속에 아무도 없는 덩그러ん 房에 홀로 깨어 일어나 소리소리 지르며 울었던 記憶이다. 대답이라곤 벽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자기울음의 메아리 밖에 없었다.

무릇 記憶이란 지금 現在의 自己

와 感情的으로 關聯이 있는 것만 選擇的으로 나는 法이어서 그의 이 記憶이 그때 當時의 自己와 그 記憶과 現在를 연결하는 그의 人生이 어둡고 외롭고 迷에 依해 차단되어 있었다고 解析이 되었던 것이다.

實際로 그의 生母는 술집女子였고 後에 그가 쓴 作品(戯曲—東亞日報 當選)을 읽으면서도 느꼈던 그의 生父에 對한 이미지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리고는 이따금 꿈에서도 보는 海邊 모래밭 가까이 들 위에 떠 두날개를 날아드리고 떠 있는 自己모습이다.

이전 비단 줄속에서만 아니라 自己의 갈길(죽음)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기도 했고 現實로 끌어들이려는 治療에 對한 마지막 抵抗이기도 했던 것이다.

治療도중 하루는 오늘「뚜나」가 죽었다 하기에 무슨 뜻인가를 물었더니 實은 오늘이 自己 누이의 生日이라는 것이었다.

누이—누나—뚜나, 生日(누구의 것이건)→生에 對한 否定→죽음.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그의 어머니에 對한 態度이다. 自己를 낳은 어머니가 하필이던 술집女子냐. 어떻게 된 것이기에 이 世로엔 나혼자 남아 있게 된 것이냐. 그리고 아버지는 없고 每日 저녁 열둘도 모모는 男子가 自己 어머니의 옆에 누워 있느냐. 하지만 끝내 그 女子는 내 어머니다. 이와

같은 사랑과 미움이 그의 마음을 갈라 놓기에 充分했고 이는 그가 體驗한 많은 同性愛의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異性—어머니—에 對한 不定이 同性愛로 發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나이 16歲때 어느 여름날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늘 바다에서 그의 젊은 꿈을 水平線에 보내고 있을 무렵 女性에 對한 중오심의 결과를 처음 경험하였다. 즉 그가 波濤가 바위에 부딪쳐 소리나며 부스러지고 소용돌이치는 것을 내려다보며 時間과 空間을 초월하여 바위 위에 앉아 있을 때, 水泳을 하다가 바로 바위 밑에까지 와서 그 바위에 오르려는 女子의 도움을 바라는 소리에 그의 波濤의 환타지가 깨어지며 그는 激한 感情을 억누르기 힘이 들었다.

도와 달라는 그녀의 흰 손이 마치 해파리의 變身같이 느껴졌었고 그러면서도 本能的으로 손이 내려가면서 救援 주려는 순간 自己손이 더럽혀질 것 같아 손을 움츠리며 물끄림히 내려다보는 것이 그女가 살려달라고 再次 소리지르는데 그만 역겹고 죽여 버리고 싶은 격한 충동이 솟구쳐 참기가 힘들었다. 그는 겨우 그런 공격성을 억누르고 칠을 한번 탁 배알고는 그 바위에서 자리를 떴다고 한 그의 말속에도 그의 어머니에 對한 만만치 않은 적개심을 내다볼 수 있고 역시 그 무렵쯤 되어서 바닷가에 홀로

사는 青年을 몹시 좋아 했었는데 어느날 무서운 暴風이 불어와 온 天地가 바닷물로 뒤덮일 것만 같던 날 그 暴雨와 暴風 속을 뛰어가 그 青年의 가난한 세간사리를 건져내는데 온 정력을 다 했었다는 歷史를 비롯하여 軍丙에서 某將校의 부름을 받아 그의 모기장 속에서 經驗한 同性愛 行爲도 가졌던 것이다. 그럼 城속에 가두어 넣은 뚜나라는 女人은 어떻게 될 것일까 하는 問題가 남았는데 그의 멧히고 멧힌 殺母 殺父와 같은 攻撃性의 뒤에는 또한 그의 生의 陽性的이고 肯定的인 面에서의 사랑이 도사리고 있어 물보다 진한 피에의 鄉愁와 그의 온존에 對한 希望이 있어 비록 더럽혀진 피이긴 하나 어떤 形式으로라도 피—어머니—의 健全한 모습을 지니고 싶었기에 現實적으로 용납이 가는 唯一한 血親인 누이에 象徵的인 어머니의 모습을 실어 「뚜나」라는 第三의 이름으로 變形시켜 모시는 自己나 第三者가 뚜나의 本態를 모르게 위장시켜 城에 모시어 마리아의 像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와 나와의 治療 도중 일어난 상세한 현상들은 略하겠지만 治療가 進行되어 가는 동안 그는 매양 허물어져가는 城을 되살으려고 무진 애를 썼고 뚜나의 진정한 이그러진 모습을 外面하려는 노력은 정말 피눈물나는 것이었다.

끝내는 이 城이 무너지고 「뚜나」가

정말 측은 날 그는 유리窓을 부수고 나에게 暴言을 퍼부었다. 너무 허전해서 막 울어댔다. 絨을 破壞해버리고 책재를 부를 수 있을만큼 事態가 安逸한 것만은 아니다. 무너진 城土 위에 現實의 꽃을 심어 주어야 할 段階가 왔던 것이다. 궁리끝에 그의 꿈을 찾아 돌아 다닌 낭만적인 歷史를 지녔다는 것과 그의 再靦하려는 노력 그리고 文化的인 精神構造가 있음에 着眼 그에게 創造的인 과제를 주는 것이 가장 좋은 處方이라고 判斷하여 그의 過去史를 쓰게 하였다.

하루 저녁에 60枚(200字原稿紙)식 쓰는 情熱이었지만 近 200枚나 되는 글이 不完全한 自己防禦로 말미암아 지리멸렬되어 있었다. 다시금 治療는 계속되었다. 지금까지도 기억에 生々하지만 그는 한번도 治療者를 이리저리 다루어 본다면가 괴롭게 굴려는 態度는 한번도 보여주질 않았었고 反對로 언제나 치료자에게 依存하나 지나치지 않게 그리고 自己問題를 다루는데만 몰두하였다.

自己防禦를 最大限度로 알게 하면서 다시금 쓰게한 것이 “○○의 집”이라는 題目의 作品이었다. 여기서는 第三人이 등장하여 아버지를 우연한 事故에 죽게 하였고 어머니는 칼에 맞아 피를 만하며 죽게 하였으며 누이등생과 自己 그리고 또하나의 가상의 등생을 등장시켜 이런 病的

집안에서 어둠애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를 教科書 以上으로 明確하게 제시해 주었다. 즉 누이도 存在하기 爲해서는 養母나 마찬가지로 時時로 變化되는 환경에 自己主觀없이 끌려서 그림자 구실도 못하던 生氣없이 살게 하였고 自己로 등장시킨 主人公은 이런 分圍氣에서 도망하게 되고 끝내는 다시 돌아와 어머니를 쫓아 죽이는 役을 하게 하였고 등생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대들며 싸우는 役을 주었다.

그의 作品은 어머니를 죽이고 두대 한복판에 大字로 팔을 펴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고 疑問符를 남기며 끝났는데 이 끔찍한 피의 갈등과 殺親場面을 소름끼치게 읽으면서 이제 그가 自己의 할 말을 다했다는 印象이었다. 필자 앞에 꾸부정히 앉아 필자가 그의 作品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들여다 보고 앉아있던 그의 눈이 滿足해하는 듯하며 필자에게 이제 내 말을 들어서 속이 시원하겠구로 라고 얘기했던 것같은 記憶이 난다. 그러곤 限없이 허전해 했던 그 어깨도 말이다.

그러나 이제 그 지리멸렬이라곤 없었다. 실지어는 두—드를 죽이고 가다가 어머니를 죽이는 순간의 感情의 폭발까지 프롤로그의 刺戟적이었고 가슴을 조리게까지 만드는 技術까지 보여주었을 程度이다. 현상모집에 當選될 程度였으니까

<정신병>

그리고 그 殺母의 장면은 단 한번 찌르는 것으로 그치지만 읽는 나에게겐 찌르고 또 찌르고 이를 잡고 물어뜯고 찢고 씹는게 아닌가 할만큼 처절한 것이었다. 그후 마음에 淨化가 찾아들었다. 그는 이제 조용히 웃을 줄까지 알게 되었다.

問題는 그가 그 戯曲의 끝에서 의친 「나의 길은 어디냐」하는데 있었다. 그의 마음속을 괴롭히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죽인 後 荒無地같은 터 위에 무엇을 세워야 했다.

受賞의 興奮이 갈아앉으면서 그는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손이 부끄럽다면서 담배 한갑을 내놓았다. 필자는 그처럼 記憶에 사그러지지 않을 贈物을 받은 일이 없다. 自閉症, 被害妄想 空笑等 精神分裂의 여러 증상으로 病院에 入院되어 자칫 내려 버리면 증상이 아주 굳어질 그를 이만큼 끌고 나온 것에 내 人生最初로 大滿足을 했기 때문에 그 담배가 記憶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는 서울에서 다른 部門에 入營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의 人生에서 처음으로 榮光의 맛을 가졌었다면서 一萬五仟원의 상금을 新聞社 主權의 파티 참석과 그후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 글로서 生計가 될 것이냐를 검토도 하고 며칠 씩 으면서—하다 못해 自己와 같은 人間은 新聞社 植字工 程度로라도 滿足해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生鬻을

할만큼—꽤나 現實的인 生計方法을 모색도 하고 서울求景 하느라 한 일흔 지내면서 다 썼다고 했다.

지금 잘 記憶은 안나지만 그때 新聞에난 그의 作品에 對한 評은 너무 어둡고 近親相姦의 問題에 觸져했으니 自己形成이나 建設은 힘들 것이라면서 二位로 當選된 作品에 더 將來를 期待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除隊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象徵的인 父親의 役을 하는 軍에서도 原泉的인 問題로 避해서 適應에 失敗를 맛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除隊를 한다고 해서 특히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 希冀을 걸어본 것은 빈사의 白沙場이 조용한 바닷가로 變해질 것을 바랄 뿐이었다.

除隊해 가면 날 그는 두려움과 期待에 엇갈린 表情을 하면서 勞動을 해서라도 房한칸을 얻어 놓고 불쌍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떠나보내면서 그가 이 냉혹한 現實에 굴복해서 다시금 두나의 誠을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달만에 日光에서 藥書 한장이 날아들었다. 바다는 몹시 조용하다고…….

×
× ×